

## 방글라데시 기도편지 56 (2023. 03. 18. 토)

그 귀한 비가 내렸습니다. 4개월 동안의 건기로 인해 온통 잿빛이었던 나무들과 건물들 위의 먼지들이 많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방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바로 이 즙음의 나무 색깔입니다. 숨은 쉴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정도로 방국의 먼지는 심각하지요. 한국도 미세 먼지로 어려움이 심하실 시기이네요. 하지만 곧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전국이 물들어 갈 것을 부러워 해봅니다.

### 아가페 현 상황

1. 2월 26일(일)에 피크닉을 다녀왔습니다

1) 장소는 이번에 처음 개통된 메트로(지상철-사람 이름 아닙니다 ㅎㅎ)입니다.

방국은 지반이 약하고 지대가 낮아 땅위의 선로는 땅을 다져야 하고 또 비가 많이 내리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지고 돌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들기에 아예 공중으로 다니도록 고가 선로를 만들었습니다.

2) 아직 정상 운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저희에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용객이 적어, 타고 내리는 데 붐비지 않아서 좋았고, 중간역들이 개통되지 않아, 종점에서 종점 사이 중간에 한 역만 정차 하므로 시간도 편도 운행시간이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우또라 북부역 탑승 전에  
찰칵  
우리 아이들, 보호자,  
호스텔 청년봉사자,  
아가페 스태프들 모두모두...

3) 저희는 왕복 2시간이 걸렸습니다. ㅎㅎ

우리 아이들은 에스컬레이터도 처음 타보고,  
자동으로 열리는 문도 처음 보고 이렇게 깨끗한  
기차도 처음 보고...

실은 스태프들이 더 타고 싶어 했지요.



- 4) 역사 위로 올라가서 통행카드를 사서 자동 인식기에 대고 들어가 다시 열차를 타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옆의 에스컬레이터는 모두 겁나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는 걸로... ㅋ
- 5) 모두 왔는지 확인하고 승차하여 밖을 내다보며 사진 찍다가 최종역에 내려서 통행 카드를 넣고 나와 반대편 입구로 다시 들어가는... 아직은(?) 역사 내로 통행이 불가합니다.
- 6) ㅋㅋ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전 길에서 준비해 간 간식을 먹고 다시 올라가 시발 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 7) 우와~~~ 장애의 몸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는데도 차들이 아무도 기다려 주지 않아 온 몸으로 막아 서고 아이들을 건네야 했습니다. 놀이공원보다는 덜 힘들 것이라는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오르락 내리락, 역사를 완전히 나와 이쪽에서 저쪽으로 길을 건너 걸어서 걸어서 반대편 입구로 들어가 다시 계단을 올라 표를 사고 다시 한 층을 올라가 열차 앞에 서면 밖을 내다 보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져 버리고... 지쳐서 앉고만 싶은... ㅎㅎㅎ
- 8) 휠체어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가 가운데 하나 있어 가운데로 가서 타고 다시 역사 끝으로 와야 하는 ...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휠체어 한 대만 들어갈 수 있어 8번을 오르락 내리락... 10분이면 끝낼 일을 두 세배의 시간과 힘을 들여야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몸으로 외출한다는 사실은 특히 방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선진국이라는 한국도 이보다는 낫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임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 9) 작년 소풍에도 도와 주었던 조선생님 호스텔 형들과 누나들이 또 도움을 주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내년에도 또 불러달라고... 암요 암요... 감사할 뿐입니다.

10) 새로 개통되는 지상철 종점역 주변으로 예쁜 식당들이 많아져서 식사는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만 후문에 양이 적었다는...



샬로미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보호자



리따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1 ㅋ



루비나 선생님과 아이들, 홈2(성인고아) 친구들..., 그리고 보호자와 봉사자들



폴리 선생님과 아이들...보호자,봉사자들  
우리 샤뎀(모자)은 봉사자 형인줄...



널서리 리빠 선생님 아이들,보호자, 봉사자들...

11) 식당 앞에 조그만 강이 흘러 주변에서 사진 찍고 휴식을 취하다가 돌아 왔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사고 없이 다녀 올 수 있게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감사 드립니다.



어릴때는 엄청들 싸우더니 이제는 아가페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준 파힘,샤뎀,압둘... 멋진 브로맨스~~~~

2. 센터에 수두와 볼거리(이하선염)가 돌았습니다.



처음에 열이 나기에 감기인 줄 알고 해열제만 먹었는데 오후가 되니 두 뺨이 붓기 시작하더니 첫 날 두명이, 그 다음날에는 세명이, 그 다음에는 스텝까지... 등하고 하는 친구들은 집으로 되돌려 보냈지만 흠에 있는 반사와 파힘은 격리도 불가능해 그냥 앓는 수 밖에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2~3일 안에 모두 호전이 되었고 다행스러운 것은 치명적이지는 않아서 그저 그렇게 기도하며 지나 왔습니다.

두볼이 다 부은 파힘... 이곳은 볼거리가 생기면 이렇게 싸매서 따뜻하게 해야 한하는데 의학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빠엘이 심장에 구멍이 있대요.

얼굴이 하얘지고 자주 아프고 밥도 잘 안먹기에 엄마의 말을 들어 보니 심장에 날 때부터 구멍이 있었답니다. 그 구멍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빠엘의 경우는 오히려 커졌다는 겁니다. 일단 빠엘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각종 초음파 사진들을 찍어 자문을 의뢰한 결과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심장에 구멍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이 역시 커가면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빠엘은 오히려 구멍이 커져서 호흡도, 혈액 순환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빠엘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고 막내가 이제 걸어다니는 애기라 엄마가 빠엘을 잘 돌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술만이 치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방국의 의료 수준을 잘 몰라 선뜻 결정을 할 수가 없어 당분간 상황을 지켜 보려고 합니다. 다른 수술도 엄청 했던 아이라...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술없이 자연스레 막히면 제일 감사하고 수술해야 한다면 주님의 손이 수술해 주시길...

4. 싸디까(자폐, 발달장애)가 완전히 시골로 내려갑니다.



다카의 물가가 너무너무 올라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늦둥이 사디까는 부모님이 아가페 홈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시기에, 부모님의 품이 가장 좋은 학교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홈에서 돌봐줄 수는 있다고 얘기해서 3~4일을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의외로 꼬집기는 하지만 잘 지냈는데 부모님 모두 올면서 밤을 지냈다며 아무래도 데리고

내려가야 겠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떼어놓으려고 애쓰기는 커녕 혼자 놓고 가는 것이 너무 마음아프다고, 못하겠다고 우는 부모님이 감사할 수밖에요... 처음에 와서는 때리고, 꼬집고, 침뱉고, 때쓰며 울기를 일주일 넘도록 하더니 언제 부턴가 얼굴에 웃음기가 생기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울동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요... 그렇게 잘 자라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아쉽지만 부모님께 감사하며 보냈습니다. 주님 보내주시면 다시 오겠지요. 그렇게 사뵈도 가고 사디까도 갔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5. 스쿨로 올라간 돌나와 마푸자가 잘 적응했습니다.

스쿨은 혼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 널서리는 개인 테라피 위주여서 테라피 시간 외에는 친구들과 놀이를 해야 하는데 마푸자는 함께 놀기가 안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시간별로 프로그램이 있으니 혼자 있을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는 일도 없이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도 엄청 걱정하고 학교에 올라가기 싫어 했었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6. 발화 클래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농아와는 달리 들을 수 있고 소리를 낼 수도 있으나 뇌병변아의 경우 구강 근육이 뇌의 명령을 잘 듣지 않으니 발음을 위한 근육들이 힘을 받지 못해 발화가 안되고 침을 흘리곤 합니다. 셀레나라는 교사가 매일 한 시간씩 4개 반을 운영하여 총 11명의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리를 정확히 잘 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7. 매주 화요일 마다 생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나물 다듬기...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게 잘 다듬어서 감동했습니다. 반은 버릴 줄 알았더니 저보다 잘합니다. 완존 너무 감동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 없이 잘 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너무 기특합니다. 쌀도 씻도 밥도 하는 훈련까지 하여 자립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너무 잘해서 제가 아이들 수준을 너무 낮춰 생각했는지 반성하는 중입니다. ㅎㅎ 감사감사 또 감사



### 방국 상황

어김없이 찾아오는 라마단이 올해는 3월23일(목)부터 시작됩니다. 30일간의 낮시간 금식 후 축제가 시작됩니다. 금식 기간중 모든 물가가 치솟는데 특히 식료품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 개인적인 상황

2~3월은 아프고 나니 다 갔네요. 3월 12(일) 저녁부터 시작된 장염으로 거의 일주일을 앓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살과 오한이 오기에 감기인줄... 구토와 설사까지 하는 것을 보니 장염이었습니다. 실컷 앓고 나니 재방 한국 대사관 공지가 떴네요. 요즘 수인성 질환으로 설사등의 환자가 많이 발생하니 조심하라고... 다른 건 유행을 모르는데 우찌 이런건 앞서가는지... 아무래도 골골하는 것 보니 오래 살려나 봅니다. 안되는데... ㅎㅎㅎ

###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 1) 새로 시작한 발화 클래스 수업이 잘 정착되어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빼열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심장의 구멍이 작아지고 막힐 수 있도록...
- 3) 걷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 신띠아, 살만,라미아 기도부탁드립니다.
- 4) 수인성 질환과 환절기 감기 및 유행병들로 부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스텝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 5) 최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넓고 좋은 장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아이들이 원한다면 마음껏 운동하고 편히 지낼 수 공간을 허락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6) 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도 매일 아침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동일하게 임하시길...

###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 **대상 29:16**

성전을 짓기 위한 자원제물까지 모두 드린 후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된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으므로 다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주님! 제가 성전 지으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어마어마한 금과 세세한 물건들 까지 모두 준비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었던 것이네요. 성전을 누가 짓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있는가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지요. 바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해 줍니다. 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